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3호 2008년 4월



꿈의 계절, 4월!

눈부신 햇살과 함께 펼쳐지는 꿈의 계절...
뿌연 황사의 거친 바람과 함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은
부활의 능력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INDEX

2 구령(Soul winning)
4 그리스도 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것인가?
11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때
8 | 검손 목회 37년, 화합과 나눔을 향한 열정
13 | 다윗 대왕







구 령(Soul winning)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잠 11:30)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른 자들이다(벧전 1:22).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며(딤후 1:7), 이제 성령을 좇아 걷는 자들에게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니, 곧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딤전 1:5)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것뿐이다(롬 6:4).

구령(Soul winning),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 받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을 그 믿음에 순종케 하려는 것이며(롬 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고후 5:14)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믿는 고로 말하는 것이다(고후 4:13).

빛과 소금의 맛을 되찾아야

제 맛을 잃음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내던져져 사람들의 발아래 밟힌 소금(마 5:13)과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은 가지가 내던져져 시들어 버린 그 가지(요 15:6)가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며, 나의 처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교사로 인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것(요 3:2)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가 경건의 신비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 계시기에(딤전 3:15-16),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고전 11:18) 찾아 들어와야 한다(고전 14:23). 더 나아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우리가 의의 길로 온 것을 통해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보고 회개하고 믿으려 하는 일이(마 21:32; 벧전 2:12)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는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을 따르고(엡 2:10),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이 있어야(벧전3:13-15)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 삼천 혼이 제자들에게 더해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행 2장). 요나의 선포를 통해 저 큰 도시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 십이만 명이 넘는 자들이 회개한 사건과 같은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비전을 품고,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부함의(욘 4:11; 롬 2:4) 신적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서 받는 은혜(요 1:16)를 더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하다.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행복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요 4:46)이 없어 부끄러움에 머리도 못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요 21장), 주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하셨다. 장로장립을 받을 때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나를 찾아 감사하고 싶었다는 20년이 넘어 이름도 잊어가는 그 형제를 보내셨다. 또 선교지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선교사가 지금은 돌아와 나를 찾아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가 바로 내가 전도한 자임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다시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다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나에게 뿐이랴?

교회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요 4:36)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요16:21), 근심과 고통의 치유와 죄인 한 사람이 회개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의 기쁨(눅 15:7, 10)에 동참하는,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마음을 잃어 버렸다. 어디서 필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계 3:5). 비록 베드로와 요나 같은 쓰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자기 집은 구원했지만) 의의 선포자 노아(벧후 2:5)와 같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마 5:10-12)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깨어서,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우리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딤후 4:5). 주님은 그러한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벧전 3:14).**

구령의 열정이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이 점차 강하여지고(눅 1:80), 영을 뜨겁게 하여(롬 12:11)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널리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대하여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살전 1:8-10a)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며, 천우리의 모습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벧전 3:17)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함 중에(딤전 2:2)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세움을 입으며, 주님을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걸으면서, 번성하는(행 9:31)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한다.

[편집위원 이 영 규]

www.seeds21.co.kr
MOS
95%의 합격률
씨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열정들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이 춘천에 불고 있다. 생명이 흐르고 살기 좋은 선교의 도시를 향한 주님의 역사가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위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킨다!
CHINA FAN CONFERENCE (차이나 팬 컨퍼런스)

*FAN-팬은 중국을 위한 기도운동을 바람처럼 일으킨다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을 놀랍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팬 컨퍼런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 교회가 다음 세기에서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전도단이 주관하는 연합 중보기도 모임이다.

2008년은 중국과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다. 바로 중국이 도약을 꿈꾸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며, 복음이 전해진지 (1807년 모리슨선교사 입국) 200년을 넘어서게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은 중국이 열방을 향해 일어나도록 대로를 여는 기도운동이 필요한 해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단순히 육체적인 경기의 의미를 뛰어 넘어서 중국에 복음이 풀어지고, 중국인들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위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함께 모여서 중국선교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와 춘천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간절히 소망한다.

-일시: 2008년 5월 14(수) ~ 5월 15일(목) 저녁 7:00-10:00
-장소: 원주 "영강교회"
-강사: 예수전도단 선교 전략가 "Fred Markert"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브라더 "수"
열방대학 책임자 "홍성건"
예수전도단 대표 "문희곤"
찬양인도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모임 팀
-협력단체: 원주 기독교 연합회(주최)

세계열방을 품은 월드 크리스천으로...
선교세계관학교(MPS) 14기 개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선교세계관학교(MPS)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 유일한 가치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훈련한다. 보내는 선교사 또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의 학교이다.

2·3세계 선교,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를 향한 사역, 세계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 10/40창, 전략적 동역관계 등의 비전과 전략들이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 학교를 통해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World Christian)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강의: 3월 22일 ~ 5월 10일 (8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3:00~8: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 253-3399, FAX 253-3399
H.P. 010-4116-5373, 011-363-0926 / www.mpscc.net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 C.C.C. 춘천전도리더십훈련학교

2008년 봄!

C.C.C.가 성시화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도시 춘천에서 전도리더십훈련학교를 세우고 1회 신입생을 모집, 3월 20일(목) 오전9시30분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개강하였다.

전도리더십훈련학교는 평신도들을 추수하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비전 있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로 계발하는 훈련학교이다.

C.C.C.는 50년 역사를 통한 전도와 육성, 제자화 사역의 노하우들을 춘천전도리더십훈련학교를 통해 제공하여 춘천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주님의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일시: 2008년 3월 20(목) ~ 5월 8일(목)
주 간 반: 목요일 오전9시30분~오후4시
직장인반: 목요일 오후7시30분~10시(강의),
토요일 오후2시~4시 (전도실천)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강사: 김준곤 목사(성시화운동본부총재), 박성민 목사(C.C.C.대표)
김윤희 교수(햇불트리니티 구약학 교수) 등
-문의: C.C.C.ELTS 사역연구소 033)252-0542

당신은 가정에 축복의 통로, 당신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학교 춘천6기

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어머니로, 아내로 거듭나게 하여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훈련학교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을 주제로 5주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일시: 4월 2(수) ~ 30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5:30
-장소: 베드로선교문화센터
-문의: 011-363-0926, 018-325-1968 / ccmather.net

[글정리 편집부]

북한 나무심기를 위한
북한화가 그림전시회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통일한국의 국도를 푸르게 합니다.
후1구좌(나무 한그루) 1,000원




※4월에 전시할 교회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 성시본부 256-1260~1 기독교연합회 통일분과위원회 010-2030-8150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밀알 펜션

앞으로는 홍천강이, 뒤로는 팔봉산에 안기듯 위치한 밀알은 청정함은
물론 통나무, 황토, 숫으로 만들어 웰빙 건강까지 생각하였습니다.

※ 5월 동안 목회자들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선착순)
수련회 MT 각종모임 환영



대표 최 경 림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28
Tel : 033)435-6651
H·P: 010-8906-5672
홈페이지: www.milalpension.co.kr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자 : 김치홍(교동교회), 신덕진(YMCA), 윤병식(감리교회), 이학규(홀리클럽)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김미경

4·9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교계가 선거지침을 발표하는 등 올바른 입문 봅기에 나섰다. 한기총은 지난 14일 임원회를 갖고 '한국교회 4.9 총선 참여지침'을 마련해 회원교단에 공지했다. 한기총은 지침에서 설교나 집회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거나 복사물이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올해 총선에서 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교 세력의 국회진출 여부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이른바 '통일교 주의보'가 떨어진 상태이다. 통일교의 '평화통일가정당'에 대응하여 교계에서는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대표:최수환)'이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 지역구 후보 3명과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공천하고 18대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시민이다.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를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영적전투의 최전방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증인들의 고견을 들어보자.

장로 대통령이 탄생도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대와 우려의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학 규(춘천홀리클럽 회장)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주어진 절대 절명의 기회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장로 대통령으로서 평가해 볼 때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에 기여한 놀라운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으로 많이 쓰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한국교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절대 절명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려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신 덕 진(YMCA사무총장)

올바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 필요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한국기독교계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많은 반성과 함께 교훈을 배워야한다. 장로대통령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어떠한 정치를 해야 하며,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기독교가 정치권력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한다. 정치권력에 편승하여 세속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총선에 통일교의 평화통일가정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몇몇 교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사랑실천당'을 창당하여 대응하고 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인 '기독교정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학 규(춘천홀리클럽 회장)

기독교정당 창당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교회가 기독교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일이나 유럽의 기독교정당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기독교정당이 창당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혹은 예배시간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김 치 홍(교동교회 담임목사)

우리나라는 다원종교사회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

기본적으로는 이학규 장로님의 견해에 동감을 한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사회에서 존재하는 기독교정당을 모델로 하여 한국사회에 '기독교정당'을 세우는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기독교정당은 비록 명목상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절대과반수가 넘게 존재하는 기독교적 사회 기반위에 그리고 역사상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과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원종교사회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지희 교단은 한국의 어떤 교단보다도 일찍이 현실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과격한 대결도 하였고, 어떤 시기에는 정치권력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단 전반적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돌아보며 숙고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은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정치권력과 유착하게 될 때 선교적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는 부정적인 폐해도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

임 원

본 부 장	한 균 목사
부본부장	조 영 춘 목사
사무총장	정 재 호 목사
사무차장	이 주 호 목사
	김 영 명 장로
홀리클럽 회장	이 학 규 장로
사무국장	김 영 관 장로
감 사	조 영 호 목사
	강 철 주 장로

분과위원회

1. 중보기도위원회 — 위원장 지 용 찬 목사 · 부위원장 김 종 렬 장로
2. 성시아카데미 — 위 원 장 피 종 호 목사 · 부 원 장 황 병 호 장로
3. 성시신문편집위원회 — 위원장 최 영 조 목사 · 부위원장 고 재 만 목사
4. 국제위원회 — 위원장 박 인 관 목사 · 부위원장 이 영 길 선교사
5.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김 덕 용 목사 · 부위원장 조 은 제 목사
6. 성시전략연구소 — 소 장 최 상 도 목사
7. 성시역사기록위원회 — 위원장 윤 대 영 목사 · 부위원장 유 병 준 전도사
8. 살기좋은도시만들기위원회 — 위원장 이 병 철 목사 · 부위원장 이 진 배 장로
9. 성시선교(홍보)위원회 — 선교부장 이 무 식 장로 · 위원 김 규 현 목사, 김 지 현 (엔투어대표), 이 규 웅 (153차이나대표)
10. 전문통역위원회 — 위 원 이 요 셉 선교사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온 병 식 (강남교회 담임목사)

정치는 하나님의 평화, 정의, 사랑, 질서를 적용하는 행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비추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치권력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선택일 뿐이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선으로 세속적인 정치권력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숭배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평화, 정의, 사랑, 질서의 개념은 영적인 부분에 간여하는 특별은총적 측면도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부분도 있다. 정치는 보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평화, 정의, 사랑, 질서를 적용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국면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시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정교일치를 선택하는 유연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성취하려고 노력하였다. 정교분리나 정교일치 중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보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2/3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 덕 진 (YMCA사무총장)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저는 항상 정치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셨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올바른 길이 보인다. 예수님 당시 그의 주변에도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있었다. 또한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정치권력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셨다. 세속적 정치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꿈꾸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정치권력을 잡은 후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한다. 많은 수의 기독교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참여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성시화운동본부가 비전과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 김 치 훈 (고등교회 담임목사)



내 삶의 터전에서 한사람의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정치가 바람직

저희 교단은 일찍이 '기독교의 한국적 상황화'에 관심을 두고 '민중신학'을 발전시켜 한국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는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 진리 앞에서 숙고하고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성급한 행동보다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대안적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적 방법으로는 생활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가 무엇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중에 정치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한사람의 천국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 이 학 규 (홀리클럽 회장)

권력은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근대화초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적 지도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분들의 영향력 하에 기독교는 괄목할 만한 선교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한국기독교는 모든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절대 부족하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영적지도자만 관심을 가져왔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이다. 권력은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일례로, 10여년 전 춘천에 전용태, 양인평 장로님이 검사장과 법원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교계를 섬기고, 전도하며 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하셨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권력이 어떤 사람, 어떤 세력에게 넘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선한 사람에게는 의사에게 들려진 생명의 칼이, 악한 세력에게 주어지면 해치는 칼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예의주시하며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 바라기는 성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성시아카데미나 정치포럼 등을 통해 각 영역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 신 덕 진 (YMCA사무총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정치, 감동정치를 실천하고 꿈꿔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정치, 감동정치를 실천하고 꿈꿔야 한다. 생활정치란 모든 기독교인이면 자기가 속한 직장, 사회에서 일관되게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시켜 나가는 삶을 말한다. 감동정치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기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 생활정치, 감동정치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속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YMCA운동은 예수님을 닮은 기독청년들을 세우는 운동이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기독교의 변함없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다.

▮ 온 병 식 (강남교회 담임목사)



우리끼리의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어 사람을 길러야 한다. 조심할 점은 우리끼리의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서 남궁억 선생님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이 있었지만 애국, 애족을 위한 그의 섬김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의 평화통일가정당에 대응하여 기독교정당을 창당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당이 왜 필요하며, 기독교정당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신중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교계의 힘이 분열하지 않고 연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독교정당 창당과 무관하게 개인 · 교회 ·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힘으로 연합하여 합리적 절차를 통해 근접되도록 해야 한다.

▮ 정 재 호 (성시본부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고견을 들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시화운동본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생활정치, 감동정치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음세대 주역이 될 지도자들을 기르는데 쓰임을 받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춘천 크리스챤 사진반 모집안내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일 시: 4월~6월, 9월~11월, 금요일 오전10시
- 장 소: 춘천성시본부 세미나실
- 회 비: 월 3만원(2인 동반등록 시 2만원)
- 강 사: 이수웅(李秀雄) 선생님(일심장로교회)
  - 대원과학대 Digital 사진영상과 졸업(04년 2월)
  -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사진반(디카반, 아나로그반) 강사(99.8~현재)
  - 춘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6대 회장 역임(00.9~05.1)
  - 몰리텍3 춘천대학 산디과 출강(06.3~현재)
  - 한림성심대학 평생교육원 초빙교수(실기로 배우는사진술)(07.3~현재)
  - 춘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05.2~현재)
  - 사진실기교사 자격증취득(교육인적자원부장관)(04년 2월)
  - 강원도 사진문화상 수상(06년 6월) / 춘천사진예술상 수상 (07년 12월)
- 문의 및 신청: 011-9725-9697(이진환 총무)
- 후 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축구를 통한 복음 전파"

춘천시교회축구연합회
제3회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장기 축구대회

- 일 시: 2008. 4. 9(수) 09시 - 18시
- 장 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2면)
- 참가비: 15만원(예정)
- 참가방법 및 마감일: 4월 1일한(전화 및 홈페이지 등록)
- 예비모임: 2008. 4. 3(목) 19시 제일장로교회 소예배실(예정)
- 세부경기 규정: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홈피 참조(daum.net/cmfa)

※ 문 의 : 011-9798-8782 (춘천시교회축구연합회장 정학수 장로)



정감(情感) 있는 나사렛 마을

춘천 지내리교회는 지난 1953년에 시작된 교회로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지향적,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제 9대 담임 사역자로 부임한 장춘근 목사 이래로 성장에 선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 탐방순서로 『지내리교회(장춘근 목사)』 편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장춘근 목사

1950년대 초엽, 강원도의 평범한 산골이었던 지내리에는 인근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곳에 주님의 백성들은 있었다. 지내리에서 우두동의 우두교회까지 먼 길을 걸어서 다니시던 몇몇 뜻있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한 권사님 댁에서 새로운 교회인 지내리교회를 창립한 것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경이었다. 그 후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자라간다.

장춘근 목사가 부임한 것은 지난 2004년. 장 목사는 충남 아산이 고향이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 목사는 이미 중학교 3학년 시절 복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그 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장 목사는 졸업을 앞두고 교회 개척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낀다. 그때가 1992년. 지금의 사모인 임진숙 사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당시 임진숙 사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재원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첫 개척지로 선택한 곳은 충청도 온양지역. 조립식 교회 20평을 짓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차며 축구 사역(?)을 겸한 어린이 전도 사역으로부터 시작했다. 어린이들과 함께 동네 청년들을 모아 꿈을 심어주고 그 청년들과 함께 직접 흙벽돌을 찍어가며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까지 10년이 흘렀다. 두 번째 사역지는 태안. 교회를 개척하고 2년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회부지 1,000여 평을 구입하고 1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었다. 후임목사에게 아름답게 사역지를 물려주고 났을 때 주님이 부르신 3번째 사역지가 바로 이곳 지내리교회였다.



성장하는 사역

장 목사의 꿈은 지내리 전체를 예수님의 고향마을인 나사렛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 목사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웃의 군부대 사역. 지내리는 유난히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다. 장 목사와 지내리교회는 가까운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병사들을 실제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 매주일 예배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병사들의 주기적인 훈련 때마다 기도와 물질적 도움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웃에 있는 양지노인마을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이다. 종종 노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일일이 영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것도 벌써 4년여가 되어 간다.



장 목사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지닌 목회자로 각인되어 있다. 심지어 교회와 관련이 없는 동네 주민들까지도 장 목사와 지내리교회를 좋아한다. 교회에서는 매년 부녀회와 노인회에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고, 각종 경조사에도 장 목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한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성탄절 행사에는 동네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

선교중심적인 사랑의 공동체

장 목사는 사랑의 공동체 건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사역을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이기도 하다. 장 목사는 매주 목요일에 직접 성도들과 함께 가가호호 동네를 전도한다. 이미 아산과 태안에서부터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다. 태안에서는 매주 시장 바닥을 뒤지다시피 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다. 이곳 지내리교회에서는 '웨슬레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전도 팀을 만들었다.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전도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차를 나눠주며 전도하고, 겨울에는 마을회관,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전도한다. 주민들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여 전도하는 것이 장 목사가 즐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

지내리교회는 장 목사의 부임 이래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 불임(不姙)가정들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불신자 이장 중의 한 분은 "교회에 나가야 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날부터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여 올해엔 집사로까지 임명받아 섬기고 있다고 한다. 3년 선 큰 산불이 나 산 밑에 자리 잡은 지내리교회가 화마에 휩싸여 핸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주변 성도들과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합심하여 불 진압에 나섰고, 하나님의 극적인 막아주심으로 불길의 방향이 바뀌며 교회 바로 뒤에서 진화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했다.

장 목사와 지내리교회는 점차 늘어나는 차세대를 온전히 키우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삼는다. 올해부터는 차세대의 교육에 더욱 치중하며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린이 출석 100명과 교사 2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과 성전 건축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았던 정감(情感)있는 나사렛마을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지내리교회,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 21~24



권 기 호 목사 (춘천장로교연합회장/춘천시민교회)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장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므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약 3분의1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에녹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 신실성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낳고 지내며 죽는 삶'(5:4-20)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걸어가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더라' 하는 삶(창5:21이하)입니다. 에녹은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11:5)"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300년 동안 삶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돌아선 적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하십니다. 에녹처럼 1년 365일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 - 결단성

"므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창5:22)" **에녹이 65세(5:21) 므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이 므셀셀라는 낳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므두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다 할 평가가 없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유다서15)"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치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에녹도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방탕히 세상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은 므두셀라는 낳은 후 삶에 중대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과거의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 수도, 과거 내 인생에 큰 오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이제 새 마음, 새 결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시작합시다.

3. 세상에 있지 아니한 에녹 - 구별성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히11:5)" 사실 온 인류 가운데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에녹, 엘리야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한 사람에게만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구별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4.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냥 살다가 죽었다' 라는 아무런 평가나 가치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에녹처럼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두움 속에 빛으로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며, 결단하며,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 사색의 창

하나님의 자녀! 내 존재의 깨달음

김득일 전사 (석사감리교회)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던 어느 젊은 청년의 날에 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세상에 이름을 떨치며 사는 사람들, 국가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사람들, 기업에서, 일터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회의가 찾아왔다. 나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어느 여름날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에 멈춰서 잠시 뒤집어쓰고 자동차에 의리 치이고저리 치이면서도 찬찬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하고 있는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잡초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꽃들과 녹색으로 우거진 산, 그곳에는 나무만 있어서 산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잡초 같은 수많은 풀들이 멋있는 나무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풀들이 없다면 과연 산은 지금처럼 울창하고 멋있는 모습일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래! 나의 삶도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삶과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속된 곳에서 보여 지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도 너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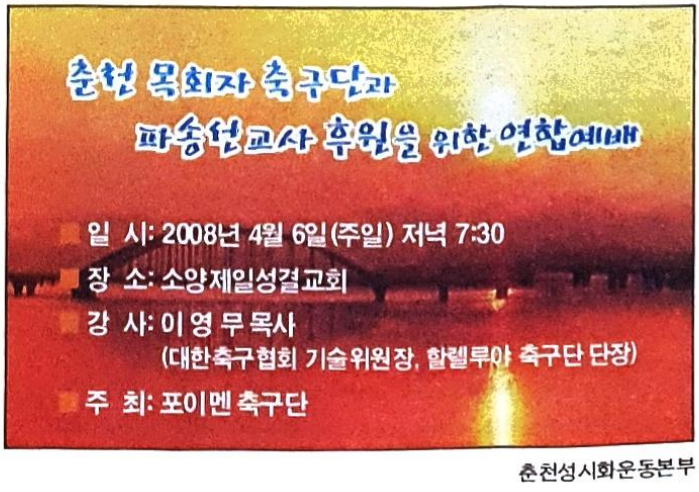
그동안 하나님께 물었던 나의 존재에 대한 답,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졌다.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데 '나'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먼저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아멘.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첨부)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겸손 목회 37년, 화합과 나눔을 향한 열정



강원기독교총연합회장에 취임한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뤄내 실추된 기독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터..."
"남과 북의 접경지역 교회로서 북한 동포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겠다."

강원기독교총연합회장 이·취임예배가 지난 3월 5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김주환 목사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되어 회장에 취임하고 취임식에서 "교회의 연합과 지역을 화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오랜 동안 열정을 불태웠던 김주환 목사.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어 이제 강원도를 섬기게 하셨다. 앞으로 1년 동안 강원기독교총연합회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자.

37년 목회 여정

김주환 목사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취임 소감을 묻자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셨으니 겸손함과 기도의 무릎으로 최선을 다해야지요"라고 특유의 소탈함과 겸손함으로 표현했다. 김 목사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지난 목회의 여정을 회상한다.

사업이 기울어 가세가 어렵게 되자 부친은 술로 인해 건강을 잃고 김 목사가 5살 때에 세상을 떠났다. 31세에 홀로된 모친께서는 술이 한이 되어 자식만은 술을 못 마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그를 교회에 보냈다고 한다. 지나치게 가난하고 어렵던 시기에 교회의 품에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 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선에서 예미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다가 폐병으로 건강을 잃게 된 김 목사.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1972년 현 순복음춘천교회를 효자동에 개척하게 된다. 당시 춘천에 순복음교회는 제 1호로서 많은 설움과 멸시를 당했다고 말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겸손하게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에는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소박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300명 성도를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김주환 목사에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셨다. 효자동에서 4차례나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교인은 1천명이 되기에 이르렀고, 주차와 식당 등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웅신하기가 어렵게 되어 3천평의 대지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하던 중 현 만천성전 부지 3600평을 구입하게 되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목사가 먼저 오병이어의 헌금을 드린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현 부지를 매입하게 하셨다.

성시광장의 꿈

앞으로 퇴임까지 5년여 남은 시간동안 그야말로 편안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김 목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 2000여평 대지위에 체육시설을 겸들인 '성시광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김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남다른 춘천성시화의 열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섬김의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이기에 강원기독교총연합회도 잘 이끌어 가리라 기대가 된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와 결핵퇴치사업 펼쳐

임기동안 펼치고 싶은 중점 사역에 대해 묻자, "강원기독교연합회의 가장 큰 행사인 9월에 개최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잘 준비하여 성대하게 열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의 기독교의 화합과 강원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벌써부터 장소와 강사를 물색하기 위해 친히 발로 뛰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소로는 춘천 호반체육관과 강사로는 조용기 목사를 모시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연합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가 남과 북의 접경지역임을 가만하여 북강원도의 결핵퇴치를 돕는 운동을 계획 중이다.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잘 연합하고 협력하기 어려운 실정을 가만하여 18개 시군의 기독교연합회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대표성을 가진 교회를 선정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회와 홍보를 통해 '북강원결핵퇴치 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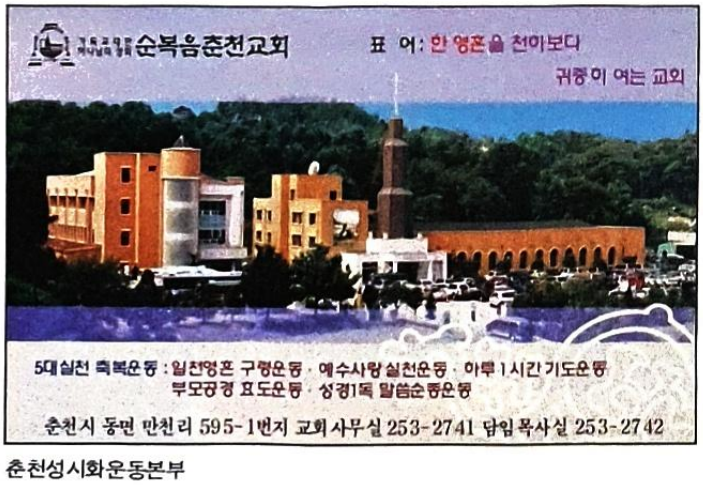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오는 4월 24일 강원도 18개 시군의 장로회 회장과 연합회장 및 총무 약 60여명을 강릉에 초대하여 1박 2일로 세미나를 열게 된다. 이 자리에 강원도지사가 만찬을 제공하고, 한기총 회장이신 엄신형 목사가 개회설교를, 이윤구 박사가 북한결핵퇴치 운동에 대해서 강연할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순복음춘천교회가 1천 만원을 헌금하는 등 강원도의 화합을 향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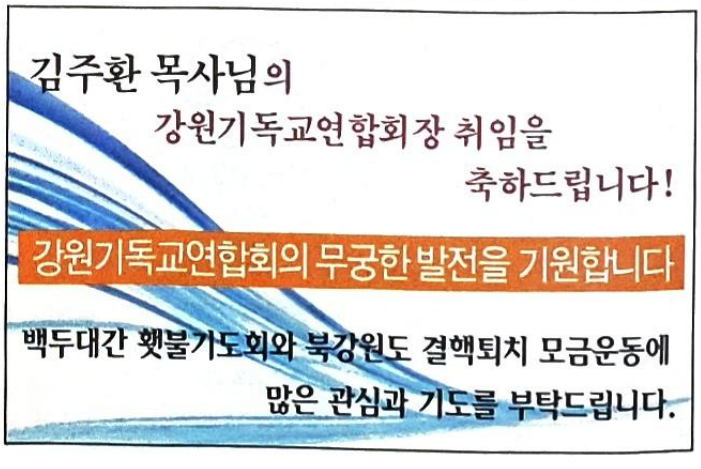
춘천성시화를 위한 교회의 참여

끝으로 김 목사는 춘천기독교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애정 어린 충고를 잊지 않았다. "저는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세 기관에는 헌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이기에 기독교연합회, 목회자이기에 교역자연합회, 춘천에서 시발점이 된 성시화운동에 헌신해야 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연합기관에 회비로 동참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춘천에 3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회비로 헌신해 준다면 기독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 목사는 전남 고흥출신으로 순복음신학교와 한세대 목대원에서 수학했다. 1969년 강원도 정선 예미교회를 개척, 1972년 춘천에 정착하여 순복음춘천교회를 개척하였다.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CBS춘천방송운영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가족은 김동예 사모와 2남 2녀를 두고 있다.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봉의산과 국사봉



건강과 더불어 깊은 묵상이 가능한 산책로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앞서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직 우리 주위의 환경은 겨울의 분위기를 다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산에 가보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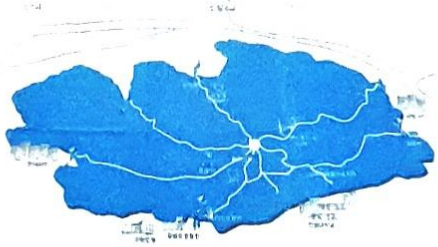
산에 가기 위해서는 아마 작심하여야 할 것 같으나 우리 곁에 있는 산은 불현듯 일어나 나가도 될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이와 같은 봄날에 훌훌 털고 한 번 발길을 잡기만 한다면 어느 듯 찾아온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산을 오를 때, 등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 뒷동산에 오르든지, 앞산에 오르는 느낌이 마치 어린 추억 속에 있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 같고, 친근한 동화 같은 분위기이다. 오르다가 보면 내 살고 있는 집이 보이고 동네가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 추억을 떠 올리면서 내가 다니는 길을 한 번 더듬어 보고,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은 내 사는 동네를 한 번 품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등산이기 보다는 깊은 사색과 풍성한 묵상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우리 곁에 있는 산은 그런 의미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산들이다.

그동안 성시신문에서 이 지면을 통해 춘천을 둘러쌓고 있는 산을 소개했다.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오르면 춘천이 내려다 보였다. 성시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에 좋은 곳들이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서 춘천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과 봉우리들을 다루려고 한다. 아마 이 산들은 아침에 가장 분주한 것 같다. 춘천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춘천의 상징과도 같은 봉의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봉황이 나래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봉의산〉이다. 춘천의 상징과 같은 산이지만 산 정상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마치 그 진가를 몰라보고 방치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그래도 사랑스런 산이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주 예쁜 산이다. 특히 호수를 끼고 있기에 더욱 자태가 아름답다.

봉의산 안내도



봉의산 안내도에 보이는 대로 봉의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곳곳에 있다. 코스 길이나 난이도도 비슷하다. 춘천 시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스가 도청을 끼고 올라가 세종호텔 앞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또한 반대편인 소양 1교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소양정(삼국시대부터 약 1,500년간 존재해온 한국 최고(最古)의 정자)을 걸쳐서 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 3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정상부분에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다. 아침 운동의 장소로 최적의 코스가 아닌가 싶다. 더하여 샘터도 구색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샘터 주위에 노란 꽃이 만발했다. 김유정의 소설(동백꽃)에 나오는 노란동백나무 꽃이다. 생강나무라고 한다. 산수유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생강나무 꽃은 가지에 바짝 붙어서 핀다. 캠질을 살짝 문지르면 알싸한 생각 냄새가 난다. 봄의 전령이다.



▲ 소양정





그러나 산에 오르는 것은 육체적 건강에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산이 험하지 않기에 오르내리며 깊은 생각도 가능하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아침마다 깊은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국사봉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국사봉〉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43개라고 한다.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퇴계동 현대 2차 아파트 뒤에 위치한 국사봉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상부분에 세워진 망제탑에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의 국장(1919년)을 맞이했을 때 이 고장의 백성들이 모여 망곡(望哭)을 하였던 곳이라 한다. 나라를 생각하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춘천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산세(203m)는 비교적 완만하며 비교적 널찍한 숲길이 1km 정도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국사봉에 오르는 길은 퇴계동 현대 2차 아파트 뒤와 춘천중앙감리교회 옆길이 있다.



이 봄에 마음 만 앞서서 무리한 운동으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순탄한 코스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유익할 것이고, 아울러 묵상의 자리로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말씀 암송을 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다면 유익이 배가 될 것이다. 아마 그 이상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 고 재 민]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본 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수 안에서 본 예술



노인-소외 / 김 복 동 作 / Oil on Canvas 1997년

인생의 노년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지 않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할 일을 찾을 수 없고,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대하는 것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분들에게도 소년 시절의 꿈과 청년의 기상과 의욕에 찬 중년의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이야기로만 남아 있다. 마치 주인 없는 빈 집 같고, 그 집을 지키는 마른 고목과도 같은 그 분들의 모습 속에서 멀지 않는 장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감상자라면 그들의 모습을 보며 노년 이후, 곧 영원의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애 질 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신 당신께
보물자리 마나를 내 드립니다.

당신이 제일로 생각하는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언제라도 좋은 얼굴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요.

이제 잠시 후면
나도 나의 자리로 돌아갈 터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시간들을
당신을 믿고 비켜서겠으니
어둡기 전에
빛을 살려 마음에 담고 가서
그 자리에 꼭 서십시요.

당신이 있어
빛이 곧 사랑임을 잃지 않게 하십시요.

詩 / 진 국 형(한길교회 권사)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 할까요?

"기도, 현대의학과 더불어 보조적인 치료에 효과있음이 밝혀져..."



고 석 언 (가정의학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정말이지 규격화된 사람들이다. 의대생활 동안 고등학교 때처럼 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 그것도 선택이 아닌 짜여진 시간표에 맞추어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뇌되기 때문에 각자의 인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자와 병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거의 동일하다. 의사는 자신을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화륨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치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인이 아닌 의사인 필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이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 가끔은 기도하는 것 보다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병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병을 받아들여서 마지막을 준비시키도록 하고 싶을 때가 많다. 기적처럼 회복된 환자를 병원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기도만 하느라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이 악화된 환자를 만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런데, 수년 전 이런 의사들에게 아주 쇼킹한 논문이 발표 되었다. 미국의 한 심장센터에서 잘 짜여진 임상실험을 하였는데,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서 한 그룹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한 그룹은 그냥 치료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당연히, 기도해 준 그룹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었다. 논문은 심근경색환자의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기도가 보조적인 치료로서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신앙이 있는 의사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고, 신앙이 없는 의사들은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고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 가을에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조카가 심한 열병을 앓다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 왔다. 의식을 잃은 지 이미 오래 됐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얼마 전에 다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이는 살아났지만 식물인간이 됐다며 아이와 아이 부모 그리고 늙으신 노모 걱정에 울먹였다. 다른 할 말이 없었다.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가족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지금 많은 후회가 밀려온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던 아쉬움에 가슴 아프다.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겠다.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사회 곳곳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실력행사만 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더욱이 가장 친밀해야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까지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쓰고 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적극 표현하는 경우도 드물다. 다음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들이다.

-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서 이 고생인지...
- 내가 무슨 낙을 보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 너 왜 OO처럼 못하니! OO 반만 따라 해봐라.
- 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다 너를 위해 하는 일이다.
- 내가 너만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말들은 자녀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일으킨다. 비록 자녀들이 이 분노와 증오심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그 가슴 한켠에는 분노가 쌓이게 된다. 그러다가 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패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학대할 수 있다. 자녀를 불신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 형제간에 또는 다른 친구와의 비교, 자신은 안하면서 아이에게만 지시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칭찬, 인정, 격려의 말에 굶주려 있다. 사람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믿어주는 대로 변하지,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 "부모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읍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엡6:4 현대어성경).

바람직한 대화를 위한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버릇을 고치고, 자기 이야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명령, 지시, 금지, 충고, 비난, 설득 등은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함 없이, 말하는 사람의 기대대로 자녀가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대화이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식 대화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의도보다는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야! 냉수 한 컵 가져와!" 이런 어법은 부모가 자기 요구만을 앞세운 것이다. "목이 마르니 물 한 컵 갖다 주면 고맙겠구나"라고 자기 이야기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으면서 훨씬 더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반영해 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말을 듣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녀의 말을 선별적으로 듣고 오해하며 말꼬리를 잡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말을 자기 생각대로 듣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말을 듣다가 딴청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녀와 갈등을 빚게 되고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자. 자녀가 편하게 말하도록 눈길을 조금 낮춰 턱 부분을 바라보며 들어주자. 자녀들은 부모와 좋은 대화를 나눌 때 행복감을 느끼며 힘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개인의 차이와 성별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하면 자녀들은 자기방어에 급급할 뿐이다. 자녀들에게 변화를 원한다면 자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지 말고,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은 이 땅위에 없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부모도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으면 자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들을 더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의사소통에는 말과 글 등 언어적인 기호를 동원하는 대화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의사나 행동 동기를 노출하는 의사소통이 있다. 효율적인 대화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물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잘 이해하고 활용할 때 훨씬 더 용이하다. 손잡기, 어깨 감싸안기, 눈 맞추기, 포옹하기 등의 신체접촉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을 알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바람직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여 자녀를 노하게 하는 원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시127),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개성 있는 인격체이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졌다가 우리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룰 존재이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자.** 하나님도 그 자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 자녀가 귀하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도와줘야 한다.

[편집부]

예 향

변화에도 때가 있다

옛날 서울의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고 한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바람에 산행자체가 매우 위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도시화로 호랑이가 사라져 버렸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호랑이든지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매오를 고쳐줄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맹인을 상대로 한 그런 질문들이 때로는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주님은 결코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갈망이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변화에도 때가 있다. 너무 늦으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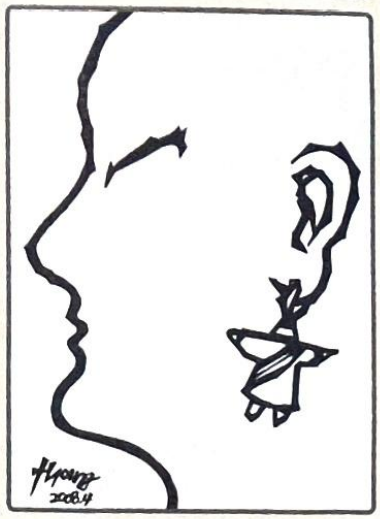
[편집위원 최상도]

주향 목회자 무료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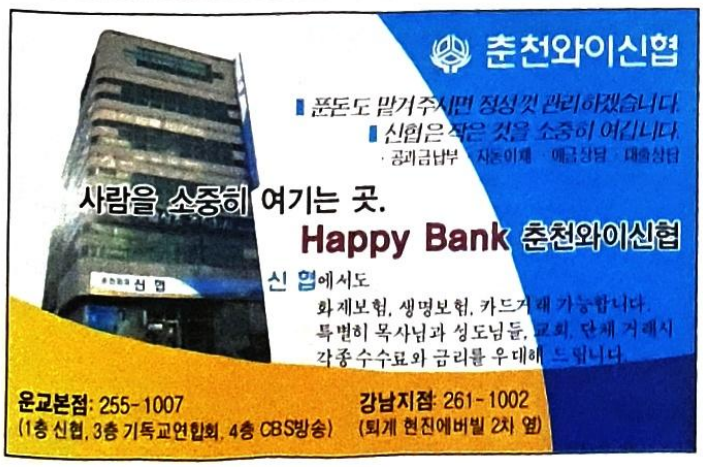
◆일 시 : 4월 17일(목) ~ 18일(금)
오전10시 ~ 오후 5시
◆장 소 : 주영교회
◆강 사 : 이종곤 교수(한미복음교회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구약학교수)
◆문 의 : 이병철목사(017-254-3162)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예수님은 내 삶의 약대사리?"







형제애와 사랑을 배우는 애민원







전쟁고아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무의탁 아동들의 요람이 되기까지

사회복지법인 애민원(愛民園)은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기관이다.

애민원은 故 최병환(1919~1985) 장로가 6·25 사변 후 급증하는 고아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면서 일본유학시절에 감명 받았던 보육 사업을 상기하여 춘천시 옥천동 자택에서 8명의 전쟁고아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춘천지역에 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1년 6월 28일에 애민원을 설립하여 불우한 어린이들의 요람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전 생애를 통하여 사회사업에 헌신하였고, 모든 사회사업계에 귀감이 되었던 故 최병환 장로가 1985년 12월 20일 업무를 보던 중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타계한 이후 조수정 현 원장(故 최병환장로의 부인)의 손길을 통하여 현재까지 600여명의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성장시켜 사회 각 처에서 활동하게 한 믿거름이 됨으로 그의 생애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수정 현 원장은 춘천시 중앙로에서 서울산부인과를 개업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조력자로서 고아들을 양육하였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 및 약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왔었다.

가정과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

현재 애민원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만 3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무의탁 아동을 시청 여성가족과를 통하여 입소시켜 교육, 의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원장, 사무국장, 과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10명, 취사원, 위생원 등 17명의 직원들은 68명의 아동(남43,여25명)들이 이곳에서 가정처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또한 미취학아동, 초·중·고·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아동들은 서로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밝게 살아가고 있다.

애민원 시설안내

대지 5,221㎡, 건평 1,514.44㎡로 아동실, 아동숙사, 도서실(도서열람과 미술교육), 악기실(음악교육), 컴퓨터실(컴퓨터 교육 및 과제물, 컴퓨터 게임), 상담실(아동 개인면담), 목욕실, 의무실(응급치치 및 리리보호), 식당 등 비교적 크고 깨끗한 시설로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애민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사랑의 후원금은 애민원 아동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쓰이게 된다. 작은 나눔일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것이다.

[글정리 편집부]

[후원방법]

현금후원

- 일반후원: 전체 아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
- 결연후원 : 아동과 1:1 결연이 되며 지정 아동을 위해 사용. 결연후원금은 아동개인통장에 적립.

물품후원

- 아동에게 필요한 부식, 간식, 도서,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656256 예금주 애민원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58-1번지 152
♤ 문 의 : 033)254-7038 팩스 : 033)255-7038
♤ 홈페이지 : aemin.net

이달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4월 총선을 통해나라를 살리고 일으킬 믿음과 겸손의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 소서.
  -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축복하시 요셉 같은 일꾼이되게 하소서.
  - 우상 과이신이 타파되고 정직 과 정의와 공평이 임재서는나라가 되게 하소서.
  - 평화적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소서.
* 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 모든 기독교연합운동에 활력을 주사 지역 선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모든 교회가 한 교회처럼 연합하게 하소서.
  - 이단들의 역사가 깨어지며, 홀리클럽과 장로연합회 직장선교회가 활성화 되게 하소서.
* 춘천과 강원도를 위해
  - 시장과 도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정치·경제·문화가 활성화 되어 살기 좋은 선교도시가 되게 하소서.
  - 공해없는 청정도시로 발전하게 하시고, 고속국철과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공기 내에 공사되게 하소서
* 성시화를 위해
  - 4월 7일부터 시작되는 "2기 성시아카데미" 에 생명의 일꾼들이 많이 훈련받게 하소서.
  - 춘천성시신문이 크게 발전하게 하소서.
  -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가 활성화 되어 영적인 춘천이 되게 하소서.
  - 모든선교사들을 축복하소서.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9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들 뿐 아니라 중.고.대학생과 영어를 멀리했던 성인들에게까지도 이해하기 쉽도록 문법을 단순 명료하게 구조화하여 집중적으로 회화훈련을 시킴으로 문법, 독해, 회화를 동시에 체득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탁월한 영어훈련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 영 옥(강원대학교 교육학 강사) -

정말 획기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훈련 수료자들의 입소문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미국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단 1개월만에 입이 열린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 가이닌, 목청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 을 해야만 회화까지도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 "미라클 영어는 영어의 핵과 맥을 뚫는 획고의 훈련과정입니다. 많은 시도를 해 왔지만 나이 40이 되도록 풀지 못했던 영어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영어의 구조와 핵심을 그 기초부터 확실하게 잡아줌으로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또한 강사의 탁월한 설명(문법 전체) 및 열정적인 교수와 훈련으로 훈련자에게 영어를 향한 큰 자극과 도전과 흥미를 불일듯이 깊게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미라클 과정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영어실력의 기적과 같은 창성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기스스로 영어를 습득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정확히 습득시켜 줍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영어에 한 맺힌 분들에게 이 과정을 큰 기쁨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세인고회 입군수목사-
-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 친구들이 너 영어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이렇게 쉬운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석만 하면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는데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너무나 쉽게정리가 되구습득이 되구요. 대강 답에를 끼워 맞춰 독해를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이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2배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시간을 내서 특별히 할이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가 들려요" "꿈에서 영어로 꿈을 꿨어요" "성냄에서 매일 정확5시간 자다고 다니면서 훈련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 3시간 만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수준있는 원색한 영어구사 능력은 원색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게습득이 돼요 정말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예비중학생에게 도 정말추천해 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 50대 주부까지-
-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하나하나 분명히 알게 되니까 재미있어서 3시간만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예요." - 석사초6년 -
-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잘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영어의 핵심이 한 눈에 들어와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_ 하는아쉬움이 너무커요" - 한림대학 영문과 재학생 -
-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설마 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훈련생을 대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영어 교재가 한장 한장 넘어갈 때 마다 선택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 훈련생 오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어렵던 문법도 이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배운 문법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내가 하고싶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 간단한 예문도 몇 번을 반복해야 외우던 저의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미라클 훈련은 정말미라클(기적)입니다. 긴 문장도 만만해 보이고 훈련하다 보니 어느새 좋아진 내 발음에 재가 기특해지고, 일생생활 속의 일을 영어로 말해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다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 체득케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 기본훈련 단계 까지수료생이 미국에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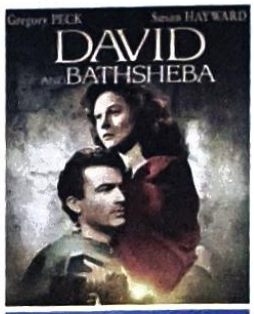
다윗 대왕 (King Dav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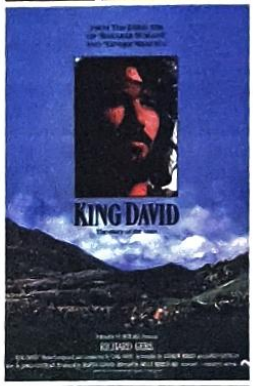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성경의 주요 인물이다. 마태복음의 시작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정도로 예수님 계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지극한 우정을 나누며, 측근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로 성전건축의 소망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등 많은 유명한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매우 드물다. 아니 다윗이라는 이 유명한 인물을 제대로 그려낸 영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TV영화 〈더 바이블〉 시리즈 중 〈다윗〉은 1997년 로버트 마르코비츠가 연출한 3시간이 넘는 대작인데 반해 연출과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기록적이고 설명적이며 교육적 목적에 그쳐 영화적 감동이 그다지 없다. 이밖에 〈사울왕과 다윗〉(Saul And David, 1964), 〈다윗과 골리앗〉(David & Goliath, 1961) 등이 있으나 자료로 남겨져 있지 않다. 또 명배우 그레고리 펙과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한 헨리 킹 감독의 1951년작 〈다윗과 밧세바〉(David And Bathsheba) 역시 다윗의 일부분만을 조명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귀여운 여인 등 로맨틱한 배우로 유명한 '리차드 기어'가 다윗 역을 맡았다고 하여 흥미가 당겨 찾아보니 1985년작 〈다윗 대왕〉(King David)이 비디오로 나온 게 전부라 막막한 중에 감사하게도 편집위원 한분이 소장하고 있어 원작을 감상할 수 있었다.

1990년 '드라이빙 미스데이지'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감독 브루스 베레스포드의 연출력과 명배우의 연기가 마르코비치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고 의상도 수려하였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사울을 경고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점이 시원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다윗을 제외한 조연들의 연기가 잘 받쳐주지 못한 점과 중요한 이야기 고비마다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산만한 전개가 조금 실망스러웠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극적인 감동이 떨어졌다. 골리앗의 몸집이 조금 더 컸어야 했고 전쟁 장면도 박진감이 부족했다. 또 사울에게 쫓기다 동굴에서 시편51편을 지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경영화는 성경의 그 깊은 감동과 영감만큼보다 아름답고 극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영화를 통해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고 더욱 깊이 적셔지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적 효과에 그쳐서는 안된다. 너무 감각적이거나 오락적인(영화자체가 오락이지만) 재미에 기울어지면 안되겠지만,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에는 영화적 요소와 언어의 적절한 사용으로 새로이 영적으로 눈뜨게 하고 감동케 해야 한다. 더욱 큰 영감과 정성으로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소재로 한 스펙터클 대작의 블록버스터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책 소 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신은재 그림, IVP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판매를 올리고, 한글판 1981년 출간 이래 50만 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IVP 소책자를 예쁜 일러스트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민 그림책이다.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첫 대면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한 번쯤 읽었을 분들에게는 다시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도서 사이트에 실린 리뷰가 마음에 남아서 이를 소개하므로 책 소개를 하려고 한다. "책의 깊이는 두께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얇은 책에서 많은 생각과 진한 감동이 전해오니 말이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번은 권하고 싶고 또한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집으로 표현한 게 너무도 공감이 된다. 책 표지 만큼이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책… 하나하나 그림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림이어서 너무 좋았던 책"

이 봄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3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감북성결교회
광염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담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주향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지연유치원
디티피아	앤투어
쏘인테리어	씨앗컴퓨터학원
제시뉴욕	

김 기 태	김 은 선	김 길 홍
김 진 삼	김 현 철	김 영 명
박 동 환	신 성 균	심 인 섭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의 석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지 상 근	최 상 호
최 치 광	최 예 석	한 순 수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순 복		

춘천기독교연합회 회비 납부 교회(2008. 2월 이후)

광영교회	광염교회
나눔교회	늘사랑 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신매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새춘천 교회	소양제일교회
소양교회	순복음 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온누리 교회	은혜교회
원평교회	제일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사랑의장로교회	춘천장로교회
김 혜 경	이 복 규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9기)

1. 개강일시: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5월19일(월)~6월16일(월)(매주월,화,목,금 6:40~10:10 P.M.) 1일3시간30분씩 (개월16일간 총56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인트로단계 9기 교재(Interchange(Intro)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
4. 장 소: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키플 22번2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초5·6년생 · 고등학생,대학생,일반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많은 말이 하게 한다.
   ③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처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출국이 임박한 분,선교지로 파송될 분,해외여학연수,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기초야 할 곳.
   ⑤경험자의 일소문을 듣고 타지역(서울, 부산, 성남, 경백등)에서도 일학해 춘천에 원정하서 훈련 받는 곳.
   ※영어핵심을 통해서 훈련사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파른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5월 2일(금)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T)264-0691, 011-365-6239, 010-8250-0688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시간: 1차(4월 12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4월 26일(토) 오후5시~6시30분) ※사전접수 요망.

※※ 훈련생 자격: ①기독교 신앙인, ②본 훈련을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2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참석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누구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꿈을 꾸는 대한민국

조 영 춘 목사(예꿈 교회 담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날 가나안 농군학교의 인도 정착과 확대를 돕기 위해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연설문이 궁금했었다. 어렵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변하고 있는 리더십을 발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선 연설문 속에 담긴 겸손함과 미래지향적인 화합은 인상적이었다. 지나간 역사의 노고와 땀을 인정하고 그 발판 위에 꿈을 일궈나가려는 새로운 리더십은 정말 보고 싶었던 모습이다. 5년 전 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를 부정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된다. 대부분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세대를 부정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닌가?

선진화의 길을 다 함께 열자는 포용력엔 특별한 열정도 보인다. 특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서번트 리더로서의 겸손한 자세는 아주 귀해 보였다. 또 실용과 경제를 강조하여 현 한국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참으로 감사했다. 지금 한국의 국민은 꿈에 굶주려 있다. 정치인들은 자꾸 문제만 들춰내고 남을 비방하는데 앞장섰었다. 실상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더 이상 폭로정치 고발정치를 백성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항변했던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 먼저 화합과 하나 됨의 꿈을 말하고 이를 실천하며 꿈을 이루는 국민이 되자고 역설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꿈을 가진 대통령과 백성은 내일을 아름답게 창조해갈 것이 아닌가? 꿈이 있는 백성은 행복하다.

이번에 인도여행에서 단순히 인도가 문화탐방이나 관광을 위한 땅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기적을 경이롭게 보고 있다. 아직도 사회적 계층 갈등 속에서 고통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제시는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고 있다. 인도 북동쪽 국경지역에 있는 비하르주는 불교의 발상지인 부다가야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인 바라나시 등이 속해 있는 유명한 곳으로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로 나갈 접경지역이며, 공산당이 사회적 갈등 속에 창궐하고 있는 아직도 GNP 100달러의 빈곤과 갈등의 땅이다. 이곳의 중요대학인 AN대학과 경제연구소와 각부장관들, 경영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도 새로운 꿈을 꾸며 경제문화사회적으로 발 돋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의 새로운 꿈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꿈은 세계인의 꿈이 될 수 있다. 정말 솔로몬같이 기도하는 대통령을 통해 꿈이 있는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젠 기도할 때라고 본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주간 교사 강습회
일시: 3월 10일 ~ 5월 19일 매주 월요일 12주간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등록금: 3만원(12주간 간식, 핸드북, 특강교재 제공)
※전도용 교재가격 : 45,000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학원복음화대회 연습 / 기도
일시: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지하기도실
2) 제12회 강원지역 연합 학원복음화대회 "APPOINT"
일시: 2008년 4월 19일(토) 오후6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강사: 이원호 목사(소양교회)
주최: YES COME
주관: 춘천, 양평, 양구 지역 중고교가족동아리연합
3) "위대한 인생" 1학기
일시: 4월 26일(토) ~ 7월 12일(토) 매주 토, 오후6시~8시30분(셋째주 토요일 제외)
장소: 베드로 선교센타 5층 대상: 중 · 고교생
회비: 3만원(교재비, 간식비 포함)
양육과정: 기초신앙다지기/ 인성훈련/ 비전발견하기
담당자: 신유정 간사 (010-5422-2321)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bve
한승연간사 010-3369-699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CCC 춘천전도리더십훈련학교
일시: 3월 20일(목) ~ 5월 8일(목)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254-6401)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춘천자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5기 BEDTS(직장인예수제자훈련학교) 모집
대상: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 주부 및 모든 그리스도인
일시: 4. 19 ~ 9. 20 (금: 저녁7시~10시30분, 토 오후3시~10시)
전도여행 : 7월 중순
강의내용: 하나님의 음성듣는 삶, 묵상, 중보기도, 예배 치유, 하나님의 사랑, 재정, 제자도, 사고방식 선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충성과 위탁 등
장소: 거성침례교회 (춘천시 만천리) 회비: 120만원
원서: http://town.cyworld.com/ccywam 다운로드 작성 후 ccywam@gmail.com으로 접수.
문의: 033) 252- 1128, 010-6217-7533(허정아 간사)

◆ IVF

1) 사무간사 수련회
일시: 4월 7일(월) ~ 9일(수) 장소: 파주 삼람의집
2) 말씀사경회
일시: 4월 9일(수) ~ 11일(금) 오후7시
장소: 그레이스교회 (후평 한신A 부근) 문의: 252-5200

◆ JDM

1) 복음축제
일시: 4월 3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 실사구시관
2) 지역간사수련회
일시: 4월 15일(화 ~ 18일(금) 장소: 미산
3) 새내기 신앙강좌
일시: 4월 28일(월) ~ 29일(화) 오후7시 장소: 춘천회관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 성경번역선교회

1) 위클리프스쿨
일시: 4월 1일 ~ 5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운교동)
2)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4월 7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5층
말씀: 진대인 선교사(동아시아 M족)
문의: GBT 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 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집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석사동 우석조교 앞)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4월 7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중앙성결교회 1층 소예배실
문의: 제이락클럽 [http://club.cyworld.com/jbc]
박유식 010-9368-9856 이영규 010-2872-4727

◆ 월드비전 강원지부

1) 2008 사랑의 점심나누기
일시: 3월 1일(토) ~ 5월 31일(토) 3개월간
주최: 강원도민일보, 춘천MBC, 월드비전 강원지부, 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협의회
주관: 월드비전 강원지회연합회
후원: 강원도(18개시군), 강원도교육청, 교차로, 야후코리아
모금목표(4억5천만원-전년도모금액350,000,000원)
모금지원계획: 국외- 아프리카 잠비아에 강원도 이름으로 희망의 보건소 건축, 국내- 사랑의 도시락집 지원,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 강원도내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저소득아동 교육비 지원

◆ 평화교회 다니엘 공부 세상

1) 습관을 바꾸어주는 자기주도교육
대상: 6~7세, 초등학생, 중학생(수시모집) www.schoolcity.co.kr
장소: 퇴계 주공1단지 정문 앞
문의: 1577-1225, 033)261-8745,
010-2032-8160, 010-3379-7962

◆ 미아예방 막대인형극 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주부봉사자, 개인별 혹은 단체(8~10명)별 모집 (ex. 교회나 유치원, 학교어머니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등)
봉사내용: 탈인형 연기, 막대인형 연기 등(목소리 연기 제외)
문 의: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42-0012

◆ 제2기 성시아카데미 개강

일시: 4월 7일 ~ 7월 7일 매주 월요일 저녁7시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소예배실
주제: 성시화와 북한선교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심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소.미 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설립이사(스텝) (서울동부 13기수료)

■ 춘천성시본부 사무국 예배



성시사무국 월례예배가 3월 4일(화)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교연합회장 권기호목사(춘천시민교회)는 창세기 5:21~24절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의 삶"이란 제목의 설교로 성시임원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 주향 목회자 설교세미나



주향교회(담임:이병철목사)는 3월 6일부터 7일 오후2시 이틀간 주향교회에서 '목회자 설교세미나'를 열었다. 춘천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달라스 성광교회 김은동목사는 "중심사상이 있는 설교 만들기-옥한흠 목사에게서 배운다"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행복가게 오픈



기아대책 제22호 행복나눔 춘천점 개장식이 3월 13일(목) 오전11시 중앙성결교회(담임:유동선목사)에서 전효진 기아대책춘천지역회장과 김혜은(탤런트)기아대책홍보이사, 중앙성결노인복지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앙성결교회와 기아대책춘천지역회가 함께한 행복나눔가게는 중앙교회 골목 입구에 오픈, 후원 물품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판매수익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굶주린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 하천살리기 시민들이 나섰다!



춘천시와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세계 물의 날(22일) 기념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 발대식'을 3월 21일(금) 오전 10시 춘천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 가졌다. 춘천시의 12개 시민단체(창조도시 시민포럼 포함)와 시민 1000여명은 "우리 동네 하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고, 발대식 후 공지천 주변과 의암호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예수 다시 사셨네!



2008년 부활주일예배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 주최로 3월 23일(주일) 새벽5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김주환강원기독교연합회장, 김창수 · 박상호 · 이원호증경회장, 이광준춘천시장, 허천국회의원, 교계지도자들과 1,500여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선보인 '십자가 퍼포먼스'(광염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고통을 재현하여 성도들의 눈시울과 마음을 뜨겁게 했다. 부활절준비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6:30분 석사교회 유치부실에서 부활주일예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김주환 목사 도기독교총연합회장 취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이 · 취임감사예배가 3월 5일(수)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김진선도지사, 허천국회의원, 증경회장 김창수목사와 임신영목사, 한균춘천기독교연합회장 등 도내 교계지도자들과 순복음춘천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기독교연합회 오승용사무총장의 진행으로 8대 회장 이용재목사(동해제일교회)가 이임하고 제9대 회장으로 김주환목사가 취임하였다. 김창수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의 빗이며 동역자인 김주환목사는 꿈이 있는 지도자, 긍정적인 믿음의 지도자"라고 칭찬하였다. 김주환회장은 "얼마 남지 않은 목회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연합과 지역화합, 강원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백두대간 햇볕기도회를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지원하고, 강원도 교류차원에서 북강원도의 결핵퇴치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성시본부 3월 정기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목사)는 2008년 제3회 정기임원회를 3월 27일(수) 오후3시 성시본부에서 가졌다. 이날 성시임원과 각 영역 분과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성시신문 4월호 편집방향, 재정, 영적지도와 성시포스터 제작의뢰, 2기 성시아카데미 진행상황 보고 및 변혁미국휴스턴대회, 추수감사축제, 성시투어, 직장선교훈련센터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춘천성시본부는 더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성시화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사랑의 집 기공식



소망의 마을 사랑의집 기공식이 3월 21일(금) 오후2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열렸다. 이광준춘천시장, 김창수이사장, 이창식연합회본부운영회장, 한균춘천기독교연합회장,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K-water와 함께 하는 사랑의집 기공식이 진행됐다.

■ 부활절 사랑의 계란 전달



춘천제일장로교회(담임:박상호목사)는 3월 22일(토) 오전11시 화천 사내면 명성유치원에서 군부대 장 · 사병들과 이웃주민들에게 부활 계란을 전달하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제일교회와 (합)장로회 남전도회연합, 춘천장로연합회, 군선교강원지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계란 550판은 7 · 15 · 27사단, 82정비대대, 102보충대, 춘천국군병원, 낙원동 · 조양동 · 명동상가에 전달됐다.

■ 주님의 몸 된 교회들 세워져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조교회 설립예배가 3월 25일(화) 오전11시 운교동 175번지 2층 예배당에서 김남철감독, 윤병식감리사, 김성호연합회상임총무, 이학영선교부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부연회 김남철감독과 춘천서지방 윤병식감리사는 홍관표담임전도사에게 개척기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협성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홍관표전도사는 사모 조춘실 전도사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3월 27일(목) 오후2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바나바교회 창립예배가 동부연회 춘천남지방 주관으로 베드로선교센터5층 바나바교회당에서 김남철감독, 김종호목사, 허태수감리사, 차성도교수선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부연회 김남철감독은 2323운동 개척설립 후원금을 유병준 담임전도사에게 전달하였다. 효자교회의 후원으로 개척된 바나바교회는 현재 중국유학생 약 35여명이 출석, 유학생 선교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유병준 진도사는 차선희 사모와의 사이에서 딸 찬아를 두고 있다.

취재 · 김 미 경

성시화와 북한선교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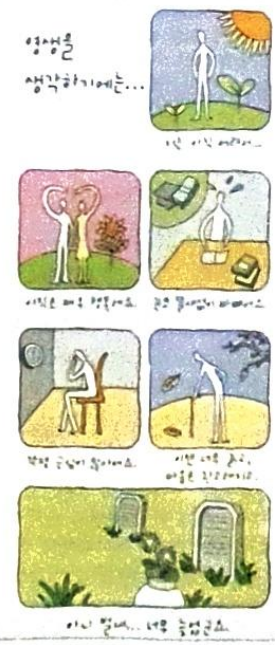
성시아카데미 2기생 모집

"21세기 미래 성시지도자를 양성하는
성시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 간 : 2008년 4월 7일(월) ~ 7월 7일(월)**
- **장 소 : 춘천제일장로교회(낙원동 성수고 옆)**
- **등록비 : 7만원**
- **문 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33)256-1260~1 / 010-3118-9355

■ **강의내용 및 강사**

	강 의	강 사
1주 4/7	개강식 · 오리엔테이션 특강/21세기 성시화 운동의 전망	한 균 목사(기독교연합회장) 양인평 장로(성시화운동 공동본부장)
2주 4/21	남북관계의 현단계와 전망 -통일의 새로운 나라	배기찬 교수(전 청와대 비서관)
3주 4/23	성시화운동의 지변확대	이원호 목사(대구 · 경북성시사무총장)
4주 5/19	민족복음화와 통일한국운동	허문영 박사(통인연구원 북한연구실장)
5주 5/26	하나님나라와 성시화운동	유임근 목사(부산성시사무국장)
6주 6/2	하나님나라와 리더십	신기형 목사(서울이한교회)
7주 6/2	북한선교(삼수령 선교센터)	벤토레이 신부(태백 예수원 대표)
8주 6/16	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	조명숙 교감(여명학교 교감)
9주 6/23	성시화운동과 영역별 선교	정석관 목사(포항성시사무총장)
10주 6/30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11주 7/7	제2기 아카데미 수료식	피종호 목사(성시아카데미원장)



인생은 나그네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는 목적지도 모르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1)

인생은 급속히 무정히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찬란한 기회들도 가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친한 친구가, 당신의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당신 곁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영원히 말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소개란]

각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세요.

춘천성시화운동본부